



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

강혜영¹⁾ · 고미혜²⁾ · 양진주³⁾ · 김선미⁴⁾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보건 의료제도 및 정책의 변화, 의료시장 개방,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과 도입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 간호가 차지하는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 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간호사 이미지는 개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간호와 간호사의 모습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종합으로(Kalisch & Kalisch, 1987), 일반인들이 갖는 간호사 이미지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회적 인식이나 대중매체 또는 서적에 의한 것 뿐 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와 일대 일로 접촉할 수 있는 병원 방문이나 입원 경험, 가족이나 친지중의 간호사의 모습에서도 형성된다(Kang et al., 2001; Kim & Kim, 2001; Heo & Lee, 1999; Yang, 1998; Lippman & Ponton 1980).

간호사 이미지는 병원의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매일의 업무에서 만나 상호 협조하여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하는 의사와 타부서 관련 직원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Kim & Kim, 2001; Yang, 1998), 간호사 스스로도 자신을 낮게 평가하여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 전문성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ong, 1993). 따라서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Chun(1993)은 긍정적인 자아상 반영, 전문인다운 행동, 환자

가족과의 상호작용, 타 직원과의 관계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속 교육 제공,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 실시, 대중 매체 활용, 전문직 활동에 참여 등으로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간호사의 이미지는 이러한 간호의 질 향상과 대중 교육 등으로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명감을 가진 우수한 인력이 간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Sheer(1994)는 젊은 여성들에게 다양한 전문직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고등학교에서 유능한 학생들은 간호보다는 타 의료관련 전문직에 입학하도록 상담 받고, 입학 후에도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무가로서 사회화되는 반면, 간호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수동적인 역할로 사회화된다고 지적하면서, 간호 교육기관에서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간호교육에서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은 질과 마케팅으로, 간호교육자들은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이 누구인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호사와 간호 관련 기관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 인식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Hughes, 2000).

간호사로서 진로결정은 학생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기대와 공교육 기관인 초, 중, 고를 거치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사회화와 TV 매체에 의해 주로 형성된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받으며(Heo & Lee, 1999; Thomas & Patricia, 1992; Firby, 1990), 이 중에서도 공교육 기관에서 교사들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

주요어 : 간호사 이미지, 고등학교 교사

* 이 논문은 2002년도 전남간호과학연구소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전남간호과학연구소
2) 군산간호대학, 3) 광주보건대학 간호과, 4) 동강대학 피부미용과
투고일: 2003년 2월 12일 심사완료일: 2003년 8월 4일

다. 그러나 외국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교사나 직업 상담자들이 간호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상담서비스 자체가 부족하여 진로 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입원한 경험이나 간호사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룬 TV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와 직업 상담자들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간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암시한다고 보고하였다(Moule, 1995).

따라서 본 연구는 장차 간호전문직을 선택하려는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양질의 학생을 간호교육에 진학하도록 지도하는데 교사에게 필요한 간호 전문직에 관한 정보제공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이미지 형성요인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배경과 간호사 경험 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의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G와 J시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 중에서 교사의 특성을 대표할 만한 인문계 실업계 고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22개교 중 3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교사 130명, 27개교 중 3개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 교사 174명, 19개교 중 6개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208명을 대상으로 한 총 512명이었다. 이중 회수율은 인문계 여고 교사가 86.2%, 인문계 남고 교사가 92.0%, 실업고 교사 100.0%로 총 회수율은 93.8%로 나타났고, 이중 미 응답한 설문지 10부를 제외시킨 470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8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였고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소속기관의 보건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받아 각 학교의 교사들에게 해당 보건교사가 구두 동의를 얻은 다음 질문지를 배부하

여 직접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Yang(1998)과 Kim & Kim (2001)의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에서 추출한 33개의 예비 문항을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를 포함한 의료인 및 대학생 56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하여, Eigen Value 1.0 이상으로 요인 분석을 통해 구성 타당도를 확인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전문적 이미지 6문항, 전통적 이미지 6문항, 사회적 이미지 5문항, 간호직 전망 3문항으로 구분하였다.

측정방법으로는 5점 척도의 Likert scale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여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0이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문적 이미지 영역 Cronbach's α .890, 전통적 이미지 영역 Cronbach's α .911, 사회적 이미지 영역 Cronbach's α .809, 간호직 전망 영역 Cronbach's α .812 이었다.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7.5 program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배경과 간호사 경험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 ANOVA와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배경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Table 1>.

연구 대상자는 총 470명으로 남자가 72.3%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남자교사는 인문계 남고에서, 여자 교사는 인문계 여고에서 각각 유의하게 많았다($\chi^2=45.96$, $p=.000$). 연령분포는 40대가 47.9%로 거의 과반수로 나타났으나, 학교별로는 인문계 보다 실업계 교사들에서 젊은 층이 유의하게 많았다($\chi^2=15.34$, $p=.004$). 교육경력별 분포는 20년 이상이 33.2%, 11년에서 15년은 21.5%, 16년에서 20년은 19.4%, 10년 미만은 26%를 차지하였고, 실업계 교사보다 인문계 교사가 교육경력 이 유의하게 높았다($\chi^2=15.71$, $p=.015$).

대상자의 간호사 경험 관련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70)

		Academic Boys' n(%)	Academic Girls' n(%)	Vocational n(%)	Total n(%)	$\chi^2(p)$
Gender	Male	141(91.6)	62(56.4)	137(66.5)	340(72.3)	45.96(.000)*
	Female	13(8.4)	48(43.6)	69(33.5)	130(27.7)	
Age(Yrs)	≤39	32(20.8)	39(35.5)	78(37.9)	149(31.7)	15.34(.004)*
	40-49	83(53.9)	46(41.8)	96(46.6)	225(47.9)	
	50-59	39(25.3)	25(22.7)	32(15.5)	96(20.4)	
Teaching career(Yrs)	≤10	26(16.9))	29(26.4)	67(32.5)	122(26.0)	15.71(.015)*
	11-15	33(21.4)	21(19.1)	47(22.8)	101(21.5)	
	16-20	33(21.4)	19(17.3)	39(18.9)	91(19.4)	
	>20	62(40.3)	41(37.3)	53(25.7)	156(33.2)	

* p<.05

<Table 2> Nurse experience related factors of subjects

(N=470)

		Academic Boys' n(%)	Academic Girls' n(%)	Vocational n(%)	Total n(%)	$\chi^2(p)$
Self	ever hospitalized	74(48.1)	64(58.2)	113(54.9)	251(53.4)	2.96(.228)
	never hospitalized	80(51.9)	46(41.8)	93(45.1)	219(46.6)	
Family member	ever hospitalized	126(81.8)	90(81.8)	182(88.8)	398(84.7)	3.81(.149)
	never hospitalized	28(18.2)	20(18.2)	24(11.7)	72(15.3)	
No. of nurses among family member &/or relatives	one and more	47(30.5)	37(33.6)	83(40.3)	167(35.5)	3.90(.142)
	none	107(69.5)	73(66.4)	123(59.7)	303(64.5)	
Ability to discern differences between Nurses and Nurse Aides	make to discern	87(56.5)	73(66.4)	122(59.2)	282(60.0)	2.70(.260)
	fail to discern	67(43.5)	37(33.6)	84(40.8)	188(40.0)	

* p<.05

간호사 이미지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신과 가족들의 입원 경험 및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의 구별능력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대상자중 과거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자가 53.4%로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입원을 경험하였고, 학교 종류별로 조사한 결과, 인문계 여고 교사가 58.2%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족의 입원경험은 모든 학교 종류별 교사들이 80% 이상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족이나 친지 중에 간호사가 있는 군이 35.5%, 없는 군은 64.5%로 나타났고, 있는 군은 실업계 교사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인문계 남고 교사는 30.5%로 가장 적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구별은 60.0%가 '있다'로 응답하였고 40%는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있다'의 경우 인문계 여고 교사가 66.4%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형성요인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3>.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은 입원이나 병원 방문 시 간호사 모습이 76.4%로 전체 4분의 3이상이었

<Table 3> Influencing factors to make nurses' image of subjects

(N=470)

	Academic Boys' n(%)	Academic Girls' n(%)	Vocational n(%)	Total n(%)	$\chi^2(p)$
Visiting hospital or admission	118(76.6)	93(84.5)	148(71.8)	359(76.4)	6.83(.033)*
Others:	36(23.4)	17(15.5)	58(28.2)	111(23.6)	
TV Drama	13(8.4)	10(9.1)	32(15.5)	55(11.7)	
Nurses in family	10(6.5)	4(3.6)	18(8.7)	32(6.8)	
Novels, Literature	13(8.4)	3(2.7)	8(3.9)	24(5.1)	

* p<.05

으며 기타가 23.6%로 나타났는데 이를 세분해보면 TV 드라마 11.7%, 가족이나 친척의 간호사 모습 6.8%, 소설이나 서적 5.1%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군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chi^2=6.83, p=.033$).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이미지

대상자의 영역별 간호사 이미지 수준은 다음과 같다<Table 4>.

각 영역별 이미지 수준은 전문적 이미지(3.46 ± 0.60), 전통적 이미지(3.28 ± 0.69), 사회적 이미지(2.93 ± 0.70), 간호직 전망(2.91 ± 0.64)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고교 교사가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 수준(3.19 ± 0.55)은 보통 보다 약간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세 집단간에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실업계 교사가 인문계 교사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하부 영역으로 구분해 보면 간호직 전망 영역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유의하게 실업계 교사(3.00 ± 0.71)가 인문계 여교(2.84 ± 0.56)나 남교(2.85 ± 0.58)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 세 하부 영역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수준은 다음과 같다<Table 5>.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수준은 남자(3.24 ± 0.53)가 여자(3.07 ± 0.59)보다 약간 긍정적이었고($t=2.92, p=.002$), 영

역별로 살펴보면, 전문적 이미지($t=1.74, p=.041$), 전통적 이미지($t=4.21, p=.000$), 간호직 전망($t=1.85, p=.033$) 수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사회적 이미지 수준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Table 5> Nurses' Image according to gender of subjects (N=470)

	Male M \pm SD	Female M \pm SD	t(p)
Professional image	3.49 \pm 0.59	3.38 \pm 0.62	1.74(.041)*
Traditional image	3.36 \pm 0.68	3.07 \pm 0.69	4.21(.000)*
Social image	2.96 \pm 0.68	2.87 \pm 0.75	1.27(.103)
Vision of nursing career	2.95 \pm 0.61	2.82 \pm 0.71	1.85(.033)*
Total	3.24 \pm 0.53	3.07 \pm 0.59	2.92(.002)*

* $p<.05$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수준은 다음과 같다<Table 6>.

연령에 따른 전체적인 간호사 이미지 수준은 50대(3.34 ± 0.65), 40대(3.19 ± 0.51), 30대 이하(3.09 ± 0.52)순으로 나타나 50대 군에서 가장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냈으며($F=6.43, p=.002$), 사후 검정 결과 30대 이하와 50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문적 이미지 수준은 50대(3.56 ± 0.66), 40대(3.47 ± 0.56), 30대 이하(3.39 ± 0.60) 순으로 보통 이상의 약

<Table 4> Nurses' Image according to types of school (N=470)

	Academic Boys' M \pm SD	Academic Girls' M \pm SD	Vocational M \pm SD	Total M \pm SD	F(p)
Professional image	3.47 \pm 0.55	3.50 \pm 0.56	3.43 \pm 0.64	3.46 \pm 0.60	0.58(.560)
Traditional image	3.28 \pm 0.66	3.21 \pm 0.70	3.32 \pm 0.71	3.28 \pm 0.69	0.84(.433)
Social image	2.90 \pm 0.64	2.90 \pm 0.68	2.97 \pm 0.76	2.93 \pm 0.70	0.60(.549)
Vision of nursing career	2.85 \pm 0.58	2.84 \pm 0.56	3.00 \pm 0.71	2.91 \pm 0.64	3.19(.042)*
Total	3.18 \pm 0.50	3.16 \pm 0.53	3.22 \pm 0.60	3.19 \pm 0.55	0.46(.633)

* $p<.05$

<Table 6> Nurses' Image according to age of subjects (N=470)

	≥ 30 S (1) M \pm SD	40S (2) M \pm SD	50S (3) M \pm SD	F(p)	Scheffe (p)
Professional image	3.39 \pm 0.60	3.47 \pm 0.56	3.56 \pm 0.66	2.34(.093)	
Traditional image	3.14 \pm 0.64	3.30 \pm 0.68	3.45 \pm 0.75	6.20(.002)*	1 and 3(.002)*
Social image	2.82 \pm 0.67	2.91 \pm 0.66	3.17 \pm 0.80	7.70(.001)*	1 and 3(.001)* 2 and 3(.010)*
Vision of nursing career	2.84 \pm 0.63	2.91 \pm 0.59	3.04 \pm 0.75	3.15(.044)*	1 and 3(.044)*
Total	3.09 \pm 0.52	3.19 \pm 0.51	3.34 \pm 0.65	6.43(.002)*	1 and 3(.002)*

* $p<.05$

간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냈으나 세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전통적 이미지($F=6.20, p=.002$)와 사회적 이미지($F=7.70, p=.001$), 직업의 전망 수준($F=3.15, p=.044$)은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 검정 분석 결과 전통적 이미지($p=.002$)와 직업의 전망 수준($p=.044$)은 50대가 30대 이하보다 긍정적이었고, 사회적 이미지 수준은 50대가 각각 30대 이하($p=.001$)와 40대($p=.010$)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하였다.

대상자와 가족의 입원경험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대상자와 가족의 입원경험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수준은 다음과 같다<Table 7>.

대상자의 입원경험에 따른 전체적인 간호사 이미지 수준은 '없다'고 응답한 군(3.20 ± 0.50) 과 '있다'고 응답한 경우(3.18 ± 0.60)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 가족의 입원경험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역시 '있다' 군(3.20 ± 0.57)과 '없다' 군(3.15 ± 0.47)의 차이가 없었고, 네 개의 영역별 이미지에서도 두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상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구별능력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대상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구별 능력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수준은 다음과 같다<Table 8>.

대상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구별능력에 따른 전체적인

간호사 이미지 수준은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3.22 ± 0.55)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3.14 ± 0.55)보다 더 긍정적이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문적 이미지 수준은 있다고 응답한 경우(3.51 ± 0.60)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3.39 ± 0.58)보다 유의하게 긍정적이었고($t=2.05, p=.021$), 전통적 이미지 수준 역시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3.32 ± 0.70)가 그렇지 않은 경우(3.21 ± 0.68)보다 더 긍정적이었($t=1.74, p=.042$).

대상자의 이미지 형성요인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대상자의 이미지 형성요인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수준은 다음과 같다<Table 9>.

대상자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관련 요인에 따른 전체적인 간호사 이미지 수준은 소설이나 서적(3.32 ± 0.61), 가족 중 간호사(3.26 ± 0.45), 입원이나 병원 방문시 간호사의 모습(3.19 ± 0.54), TV 드라마(3.12 ± 0.64)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영역별로 전문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간호적 전망 수준은 소설이나 서적에서 가장 긍정적이었고, 전통적 이미지 수준은 가족 중 간호사에서 가장 긍정적이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논 의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은 대상자의 76.4%가 병원방문이나 입원시의 간호사

<Table 7> Nurses' image according to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N=470)

	Self			Family member		
	ever hospitalized M \pm SD	never hospitalized M \pm SD	t(p)	ever hospitalized M \pm SD	never hospitalized M \pm SD	t(p)
Professional image	3.46 \pm 0.63	3.47 \pm 0.55	-0.17(.431)	3.46 \pm 0.61	3.45 \pm 0.49	0.17(.435)
Traditional image	3.26 \pm 0.72	3.30 \pm 0.66	-0.64(.261)	3.29 \pm 0.70	3.22 \pm 0.63	0.85(.199)
Social image	2.93 \pm 0.76	2.93 \pm 0.64	-0.09(.465)	2.93 \pm 0.72	2.93 \pm 0.60	0.06(.475)
Vision of nursing career	2.90 \pm 0.68	2.93 \pm 0.59	-0.45(.326)	2.93 \pm 0.65	2.84 \pm 0.59	1.06(.145)
Total	3.18 \pm 0.60	3.20 \pm 0.50	-0.43(.335)	3.20 \pm 0.57	3.15 \pm 0.47	0.63(.266)

<Table 8> Nurses' image according to discerning ability of subject between Nurses and Nurse Aides

(N=470)

	make to discern M \pm SD	fail to discern M \pm SD	t(p)
Professional image	3.51 \pm 0.60	3.39 \pm 0.58	2.05(.021)*
Traditional image	3.32 \pm 0.70	3.21 \pm 0.68	1.74(.042)*
Social image	2.93 \pm 0.72	2.94 \pm 0.68	-0.17(.431)
Vision of nursing career	2.94 \pm 0.62	2.88 \pm 0.67	0.89(.189)
Total	3.22 \pm 0.55	3.14 \pm 0.55	1.48(.072)

* $p<.05$

<Table 9> Nurses' Image according to image making factors of subjects

(N=470)

	Visiting Hospital or Admission M±SD	TV Drama M±SD	Nurses in Family M±SD	Novels or Literature M±SD	F(p)
Professional image	3.45±0.58	3.39±0.69	3.58±0.53	3.59±0.72	1.068(.362)
Traditional image	3.28±0.70	3.18±0.69	3.41±0.60	3.36±0.73	0.835(.475)
Social image	2.93±0.69	2.87±0.78	2.92±0.56	3.14±0.91	0.532(.660)
Vision of nursing career	2.91±0.63	2.85±0.72	2.92±0.69	3.05±0.57	0.801(.494)
Total	3.19±0.54	3.12±0.64	3.26±0.45	3.32±0.61	0.976(.404)

모습으로, 자신이나 가족의 입원을 통한 간호사와의 직접 접촉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다음으로 TV 드라마가 11.7% 였으며, 그 이외에는 거의 미비하게 나타났다($\chi^2=6.83$, $p=.033$). 이는 병원에서 간호사의 직접적 접촉이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Kang, 2001; Kang et al., 2001; Kim & Kim, 2001; Kelly, 1980; Lippman & Ponton, 1980)들을 지지하였고, 대중매체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들(Takase, Kershaw & Burt, 2001; Heo & Lee, 1999; Moon et al., 1998; Yang, 1998; Poronsky, 1997; Jung & Kang, 1993; Kalisch & Kalisch, 1987; Kalisch, Kalisch & Scobey, 1987)과는 유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교 교사들이 일방적인 대중매체의 영향보다는 간호사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미지가 가장 많이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사료되며, 임상현장에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자신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 이미지 영역별 수준에서 교사들은 간호사가 응급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적으로 일하고,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으며, 풍부한 전문적 지식 등을 갖고 있다는 등의 전문적 이미지 수준을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냈는데 이는 환자, 보호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Yang(1998)의 연구에서 전문적 이미지 수준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고, 의료인과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Kim과 Kim(2001)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간호사는 응급상황에 잘 대처하고,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양심적으로 일한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간호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고, 친척이나 가족에게 권할 만한 직업이다 등의 간호직 전망 수준은 전문적 이미지 수준보다 낮은 보통 이하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는데($F=3.19$, $p=.042$), 이는 런던의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Firby(1990)의 연구에서 간호사는 좋은 교육과 고도의 사고가 필요하고 사회에 유용하다고 대답하였으나, 실제로 1.7% 만이 간호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였고, 진로를 결정할 상급학년의 여학생들은 간호사보다 더 나은 전문직을 찾았다고 결과, 11세, 15세, 17세 연령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Hemsley-Brown과 Foskett(1999)의 연구에서 간호사 직업이 도

전적이지 못하고, 지적이지 않은 신체적 요구를 주로 필요로 하는 낮은 수준의 직업이라고 느껴서,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갖지 못한다는 결과, 미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갤럽 조사(Murray, 2002에 인용됨)에서 간호직이 작업환경, 수입, 미래의 발전, 임금, 스트레스, 고용 경향의 사회적 측면에서 250개 전문직 중 137번째의 바람직한 직업 순위로 나타난 결과 등과 유사하였다. 또한 간호사는 항상 자신감 있게 일하고, 의사와 동료 입장에서 일한다 등의 사회적 이미지 수준도 전문적 이미지 수준보다 낮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의료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Song(1993)과 Yang(1998)의 연구, Kim과 Kim(2001)의 연구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Lee, Ko & Jun, 1993; Park & Song, 2001)에서 사회적 이미지가 낮게 나온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전문인으로서 간호사들의 지식, 기술 및 신뢰가 대중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직의 필수 요건인 사회적 지위 및 존경, 자율성의 이미지는 부족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여러 결과에서 나타내고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른 전문직들이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이며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그들 조직의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직도 이에 발맞추어서 모든 간호사들의 학사이상의 교육 수준을 위한 교육의 일원화 및 고급화 전략과 대중에게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전문직으로 다가가기 위해, 간호전문화 영역 및 지역사회 기여를 강화시키고, 대중매체 활용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가시화 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별하는 경우가 교사, 방송인, 법무 및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Kang 등(2001)에서는 55.9%였고, 초, 중,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Park(1998)의 연구에서는 60.9%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60.0%에 머무는 것은 고교 교사가 비교적 고른 지식층에 속한 집단임에도 아직까지 간호전문직과 타 직업을 구별하는 데 부족함을 보여 간호계에 사회적 홍보의 필요성을 암시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간호사 이미지 향상의 기본적인 단계라고 볼 때, 개인이나 간호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인 간호사들을 향한 직업에 대한 긍지와 파위를 부여하고, 간호사들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간호중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야 함은 물론이며, 간호교육기관에 사명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간구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대상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따른 이미지 수준은 간호직 전망 수준에서 인문계 여자 교사들과 남자 교사들보다 실업계 교사들이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F=3.19$, $p=.042$).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 고교의 특성상, 이들은 학생들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상담 및 지도하므로 취업률이 높고, 안정된 직업을 갖게 되는 간호사 직업에 대해 인문계 교사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예측되며, 앞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더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영역별 이미지 수준은 전문적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 간호직 전망 수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는데, 이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Heo와 Lee(1999)의 연구와 초,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Park(1998)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더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낸 다수의 연구(Kang et al., 2001; Kim & Kim, 2001; Yang, 1998)들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Kang et al., 2001; Kim & Kim, 2001; Yang, 1998)의 성별은 남자가 51-58%인데 비해, 본 연구가 수행된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 압도적으로 많은 남자교사가 재직하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자중 남자가 72.3%로 유의하게($\chi^2=45.96$, $p=.000$) 많은 분포를 나타낸 점도 일부 작용했으리라고 보이며, Park(1998)의 연구에서 남자 교사가 60.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남자 교사들의 개인적 이미지나 직업적 이미지가 여자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한다고 본다. 따라서 간호사 이미지는 교사들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지됨을 알 수 있었고, 여자 교사들이 간호사가 이미지를 낮게 인식하게 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전체 이미지 수준은 30대 보다 50대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고($F=6.43$, $p=.002$), 세부 영역별로는 전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간호직 전망 영역에서 50대가 40대나 30대 이하에 비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는 Kang 등(2001)과 Song(1993)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이미지 수준이 긍정적이었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간호사와의 직·간접 접촉 경험이 증가하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젊은 교사들에 대한 간호사 이미지 향상 전략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신이나 가족의 입원 경험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Kang 등(2001), Kim과 Kim(2001), Yang(1998)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Kang(2001)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입원 전보다 입원

후에 간호사 이미지 수준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를 포함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과거의 입원 경험 자체가 현재 대상자들의 이미지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밝혔지만 Kang(2001)의 연구에서는 현재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전, 후의 이미지의 차이를 조사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입원 경험이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주 요인임이 확실하지만 입원 경험이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와 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대상자가족의 입원경험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군이 없다고 응답한 군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간호사의 직접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임상현장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적극적 간호 중재 활동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구별 능력에 따른 영역별 이미지 수준은 전문적 이미지($t=2.05$, $p=.021$)와 전통적 이미지 수준($t=1.74$, $p=.042$)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한 군이 구별할 수 없는 군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Heo와 Lee(1999), Kang 등(2001)의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교사들이 일반인들보다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비해, 간호사의 역할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중을 위한 간호사의 전문적 역량을 더욱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

대상자가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요인에 따른 전체적인 이미지 수준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입원이나 병원 방문 시에 간호사 이미지가 가장 많이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입원이나 방문 시 간호사 모습, TV 드라마의 요인이 소설이나 서적, 가족 중 간호사의 요인에 의해 형성된 모습보다 약간 덜 긍정적임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볼 때, 간호사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가장 주된 요인이 자신이나 가족들의 입원 경험이나 환자 방문인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교 교사들이 비록 적은 수이긴 하지만 소설이나 서적, 그리고 가족, 친지 중에 알고 있는 간호사를 통해서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이들 교사들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개별적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급 고등학교에서 업무하는 보건교사의 적극적인 전문적, 사회적, 직업적 역할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도모해야함이 필요하고, 앞으로 출판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과 간호사 자신들이 일상생활 자체가 대중의 이미지 형성에 깊이 연루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다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는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주된 요인이 되는 입원환경은 물론, 간호전문화 시대에 대비하여 대상자들이 직접 간호사들을 만나게 될 다양한 상황에서 개별적인 접촉 시에 간호사 스스로가 간호직에 대한 긍지와 책임을 지니고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전문직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지도하고 상담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자가 무작위로 표출한 G시와 J시에 소재한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47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 수집은 2002년 8월 26부터 10월 4일까지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는 20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s α .940이었고, 네 영역별 신뢰도는 각각 6문항의 전문적 이미지 Cronbach's α .890, 6문항의 전통적 이미지 Cronbach's α .911, 5문항의 사회적 이미지 Cronbach's α .809, 3 문항의 간호직 전망 Cronbach's α .812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7.5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Scheffe 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형성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76.4%가 입원이나 병원 방문 시 간호사 모습이라 하였으며, 기타가 23.6%로 이를 세분하면 TV 드라마 11.7%, 가족 중에 간호사의 모습 6.8%, 소설이나 서적 5.1% 순이었다($\chi^2=6.83$, $p=.033$).
-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수준은 전체 평균이 3.19점으로 보통 보다 약간 긍정적이었고, 세부 영역별로는 전문적 이미지(3.46 ± 0.60), 전통적 이미지(3.28 ± 0.69), 사회적 이미지(2.93 ± 0.70), 간호직 전망(2.91 ± 0.64)순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의 근무학교별 간호사의 이미지 수준은 인문계나 실업계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세부영역별로는 간호직 전망 수준에서 실업고 교사(3.00 ± 0.71)가 인문계 남고(2.85 ± 0.58), 인문계 여고(2.84 ± 0.56)교사들보다 약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F=3.19$, $p=.042$).
-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수준에서 성별로는 남자(3.24 ± 0.54) 교사들이 여자(3.07 ± 0.59) 교사들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t=2.92$, $p=.002$), 연령별로는 50대(3.34 ± 0.65)가 30대 이하(3.09 ± 0.52) 보다 긍정적이었다. 특히 사후 검정 결과, 전통적 이미지와 간호직 전망 수준은 50대가 30대 이하 보다 긍정적이었고, 사회적

이미지 수준은 50대(3.17 ± 0.80)가 각각 30대(2.82 ± 0.67)이하와 40대(2.91 ± 0.66)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의 간호사 경험 관련 특성에 따른 이미지 수준에서는, 자신이나 가족의 입원경험 여부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대상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구별능력에 따라서는 전문적 이미지 수준에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3.51 ± 0.60)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3.39 ± 0.58)보다 긍정적이었고($t=2.05$, $p=.021$), 전통적 이미지 역시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3.32 , ±0.70)가 그렇지 않은 경우(3.21 ± 0.68)보다 긍정적이었다($t=1.74$, $p=.042$).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업계와 인문계 교사들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수준은 간호직 전망 영역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고, 남자 교사들과 50대의 연령에서 이미지 수준이 긍정적임을 볼 때, 학교 특성과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해서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적인 간호사 이미지 수준이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간호가 가치 있는 직업과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 현장에서는 간호사들 뿐 아니라 행정가들이 간호사의 전문적 역량 및 직업적 자긍심과 자율성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통해, 대중들이 병원 방문 시나 입원시 간호사의 이미지를 더 긍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학교, 보건소, 산업장,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도 인본주의적 간호정신을 활용하여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실무영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대중매체에 의해 이미지가 형성되는 경우는 작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다른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다른 요인에 비해 간호사 이미지가 더 낮은 반응을 보이므로, 대중매체를 모니터하고 좋은 이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본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가장 관련이 있는 요인이 자신이나 가족의 입원 경험이나 병원 방문으로 나타났으므로 입원이나 병원 방문 중에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 형성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병원이 외에 복지기관, 요양원, 보건교사, 보건 진료소 등 간호실무 현장이 다양해짐을 감안하여 여러 실무 상황에서 간호사를 경험하는 대상자들이 갖는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간호사의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전문적 또는 전통적인 이미지보다 사회적인 이미지나 간호직에 대한 전망영역에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전문 간호사 시대에 대비하여 사회적 이미지와 간호직 전망 영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책과 이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 교사들의 간호사 이미지와 함께 이들 교육 대상인 학생들

을 포함한 두 집단간 비교 연구를 제안한다.

- 앞으로 우수한 간호 인력의 확보를 위한 발전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교교 교사들이 학교에서 늘 접하게 되는 보건교사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건교사의 이미지 개선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References

- Chun, C. Y. (1993). A Study of Enhancing the Image of Nursing: Action, Pla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Korean Nurses*, 32(2), 43-50.
- Firby, P. A. (1990). Nursing: a career of yesterday? *J Adv Nurs*, 15, 732-737.
- Hemsley-Brown, J., & Foskett, N. H. (1999). Career & desirability: Young people's perceptions of nursing as a career. *J Adv Nurs*, 29(6), 1342-1350.
- Heo, G. H., & Lee, B. S. (1999). Nurse's image: Perceived by Stud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Taegu, Korea. *Korean J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 9(2), 157-173.
- Jung, M. S., & Kang, Y. S. (1993). The Image of Nursing projected in Newspapers. *J Korean Acad Nurs*, 23(1), 16-28.
- Hughes, K. (2000). Quality & Marketing issues in nursing education. *Br J Nurs*, 9(12), 763-768.
- Kalisch, P. A., & Kalisch, B. J. (1987). Careerist: Toward a New Ideal. *The Changing Image of the Nurse*. Addison-Wesley Pub. Co., 179-193.
- Kalisch, P. A., Kalisch, B. J., & Scobey, M. (1987). Perspectives on the image of Nursing on Television. *Images of Nurses on Television*, Springer Publishing Co, 176-200.
- Kang, Y. S. (2001). A Study on change of nurse image after hospitalization experience. *J Korean Acad of Nurs Edu*, 7(1), 22-37.
- Kang, H. Y., Kim, M. S., Kim, J. H., Kim, H. S., Park, M. H., Park, Y. J., Song, N. H., Lee, N. H., & Jun, H. K. (2001). A Survey on Public Image on Nurses: Based on Teacher, Broadcast, Legal and Administrative Official at a Local City. *Chonnam J of Nurs Sci*, 6(1), 109-124.
- Kelly, L. Y. (1980). Nursing Image-A Question of Identity. *Nursing Outlook*, 28(3), 202.
- Kim, H. J., & Kim, H. O. (2001). A Study on Image of the Nurse. *JKANA*, 7(1), 97-110.
- Lee, B. H., Ko, J. E., & Jun, H. Y. (1993). A study of nurse's images. *J of Dong-Nam College*, 10, 331-342.
- Moule, P. (1995). Nurse learners- Do nurse tutors know them? *Nurs Edu Today*, 15, 125-128.
- Moon, Y. I., Im, M. L., & Yun, K. Y. (1998). Contents Analysis on the Image of Nurses in the Television Drama. *Korean Nurses*, 37(2), 44-52.
- Murray, M. K. (2002). The Nursing Shortage, *JONA*, 32(2), 79-84.
- Lippman, D. T., & Ponton, K. S. (1980). Nursing's image on the University Campus. *Nursing Outlook*, 37(1), 24-27.
- Park, K. A., & Song, M. R. (2001). Factors that influence nursing image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1(4), 584-597.
- Park, C. S. (1998). A Study on the Nurses' Image Perceived by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he research bulletin of Chinju Health College*, 21(2), 1-25.
- Poronsky, C. B. (1997). *The Television Image of Nurses & Nursing 1995*. Unpublished Master thesis. Science in Nursing Science in the Graduate College of the UIC.
- Sheer, B. (1994). Reshaping the Nurses Practitioner Image through Socialization. *Nurs Prac Forum*, 5(4), 215-219.
- Song, I. J. (1993). A Comparative Study of the Opinion on the Image of Nursing Among the Doctors, Nurses, other Hospital Personnel and the General Public. *Korean Nurses*, 32(2), 51-62.
- Takase, M., Kershaw, E., & Burt, L. (2001). Nurse-environment misfit & nursing practice. *J Adv Nurs*, 35(6), 819- 826.
- Thomas, W. B., & Patricia, A. K. (1992). Is Nursing's image a Deterrant to Recruiting Men into the Profession? Male High School Students Respond. *Nurs Forum*, 27(2), 9-14.
- Yang, I. S. (1998).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JKANA*, 4(2), 289-306.

Nurses' Image Perceived by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in Korea*

Kang, Hae Young¹⁾ · Go, Mi-Hye²⁾ · Yang, Jin-Ju³⁾ · Kim, Sun-Mi⁴⁾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2) Associate Professor, Kunsan Nursing College, 3)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Health College
4)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osmetology, Dongkang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nurses' image and its related factors to make nurses' image among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in Korea. **Method:** Study samples were composed of 470 teachers who were from 12 high schools in G and J city located in southwestern part of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26 to October 4, 2002.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total scale was Cronbach's α .940. **Result:** In order to make nurses' image, 76.4% of respondents were influenced by the experience of their hospitalization in visiting hospitals. The mean score of nurses' image in general was 3.19 ± 0.55 ; in four subcategories, 3.46 ± 0.60 for professional image, 3.28 ± 0.69 for traditional image, 2.93 ± 0.70 for social image, and 2.91 ± 0.64 for vision of nursing career. The mean score of nurses' image in general was more positive significantly in the 50's age group ($F=6.43$, $p=.002$) and in male groups ($t=2.92$, $p=.002$). **Conclusion:**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nursing professionals need to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aspiration in job, and autonomy of nurses in their practice fields, monitor the mass media and other publishing materials continuously, and share the appropriate information on nursing profession to the school teachers and the public.

Key words : Nurses' image, High school teachers, Korea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in 2002.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ang, Jin-Ju,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Health College

683-3, Sinchang-Dong, Kwangsan-Gu, Gwangju 506-701, Korea

Tel: +82-62-958-7686 Fax: +82-62-958-7682 E-mail: yangjj@www.kjhc.ac.kr